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안토니オス 대수사 / 1월 17일

신현 축일 종례일

시나이와 라이토에서 순교당한 수사들

제7조 / 조과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톨 성찬예배에서

- 신현 축일 제2응송 / 155. B 125
- 신현 축일 찬양송 / 155. B 125
- 신현 축일 입당송 / 155. B 125
- 제7조 부활 찬양송 / 82. A 217
- 성당 찬양송
- 신현 축일 시기송 / 155. B 127
- 사도경 : 에페소 4,7-13 / 158. 봉독서 488
- 복음경 : 마태오 4,12-17 / 158. B 150
- 성모송(신현축일 카타바시아 제9오디) / 157. B 129
- 신현 축일 영성체송 / 157. B 129
- '우리가 참빛을' 대신 '신현 축일 찬양송' / 155. B 125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레위기 20:7,26. I 베드로 1:26)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로의 입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며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라.”(II 고린도 7:1)고 강력히 권합니다.

모든 성인들 또한 삶의 첫 번째 목표를 거룩하게 되는 것에 두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살았든지, 어떤 교육을 받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성인들의 삶의 주된 목적은 거룩한 삶으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 축일로 기리는 성인들의

삶은 그들이 갔던 거룩한 길로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다시 말해 성인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이정표입니다. 우리들에게 길을 가리켜주는 이 이정표를 잘 따라간다면, 우리도 성인들처럼 하느님의 왕국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교회에서는 성인들은 ‘복음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18년도 주보의 1면에서는 매주 한 성인의 복된 삶의 메시지를 게재하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는 성인의 삶 속의 한 사건, 하나의 행동, 하나의 말씀, 하나의 거룩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들의 구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매일 삶 속에 적용해서 살아간다면, 2018년 새로운 해는 거룩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나를 선택하신 주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 없이 범하는 가장 큰 착각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의 뜨겁지 않은 신앙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혹은 내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에 대한 신앙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루가 복음 5,4을 보면 주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어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부가 밤새껏 그물을 쳤지만, 아무 소득 없이 지쳐서 돌아왔는데 다시 나가서 깊은 데에 그물을 치라고 하니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 일에는 전문가가 있기 마-

련입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나서서 할 일을 문외한이 아는 척하고 나선다면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시몬의 입장에서는 난감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시몬 베드로 사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신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전문적인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물을 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순히 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신앙을 시작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하느님의 은총이요, 자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얼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존재, 나의 소망, 나의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 속해 있음을 오늘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에의 길을 제대로 가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참 사랑을, 끝없으신 자비를 깨닫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뒤러의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손'에 담긴 이야기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을 본적이 있나요? 거기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답니다.

15세기 독일의 뉘른베르크 근처 한 작은 마을에 아이가 18명인 가족이 살았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금세공인(金細工人)인 아버지는 날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자녀들 가운데서도 알버트와 알브레히트 두 형제는 미술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뉘른베르크의 미술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논한 끝에 두 젊은이는 동전을 던져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곧, 동전 던지기에서 진 사람은 가까운 탄광에 가서 일을 해 번 돈으로 다른 사람이 미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돋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한 사람이 미술학교를 마치면, 그도 또한 다른 형제가 미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주일 교회에 다녀온 뒤 둘은 동전을 던졌고, 알브레히트가 이겨서 뉘른베르크의 미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형제 알버트는 위험한 탄광으로 가 4년 동안 힘든 일을 하며 알브레히트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알브레히트의 실력은 굉장히 늘어서 학교의 선생님들을 놀라게 하였고, 어느덧 자기 작품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알브레히트는 자기 마을로 되돌아가 알버트에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이제는 네가 뉘른베르크로 가 미술공부를 하게나. 그러면 내가 뒷바라지를 하겠네.”

이런 말을 들은 알버트는 흐느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안돼...! 안돼...! 안돼...! 난 그곳에 갈 수가 없어. 이젠 너무 늦었어. 4년 동안 탄광에서 일한 뒤 내 손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라고. 내 오른손이 관절염에 걸려 고생했고, 이젠 붓으로 섬세한 선을 그릴 수가 없어. 형제여, 아니야...! 난 이제 너무 늦었어...”

알브레히트 뒤러(A. Dürer)의 위대한 작품들 가운데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자기 형제 알버트에게 바친 ‘기도하는 손’ 이랍니다.

▶ 아타나시아

안토니オス 우종현 대신부님과 안토니オス 임종훈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1월 17일 축일을 맞이하시는 안토니オス 우종현 대신부님과 안토니オス 임종훈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리면서 하느님의 은총과 안토니オス 성인의 중보로 항상 건강하시고 하느님의 양 뼈들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잘 인도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소식

대교구

- **신자총회** ▷ 오늘 1월 14일 주일 성찬예배 후 서울, 부산, 인천, 전주, 울산, 춘천 각 지역 성당에서는 신자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 분도 빠짐 없이 참여하여 2017년도 결산과 영적 사업의 결과와 2018년도 예산과 영적 사업을 의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대교구의회** ▷ 오는 1월 23일(화) 2018년 대교구 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교구 소속의 각 성당 의회 구성원 여러분은 꼭 참석하여 우리 한국정교회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같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8년 1월 23일(화) 12시 : 점심 식사 / 오후 1시 : 대교구 의회

【장소】 대교구청 회의실

- **겨울 수련회** ▷ 2018년도 겨울 수련회가 1월 24~27일(초, 중, 고등부), 27~28일(신데즈모스)에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수련회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영적 성장의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가비는 학생회는 5만 원, 신데즈모스는 2만 원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각 성당 사무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예식

- 1월 17일(수) ▷ 성 안토니オス 대수사 축일
- 1월 18일(목) ▷ 성 아타나시오스와 성 키릴로스 알렉산드리아의 종대주교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